

“우리 사회는 아직 따뜻합니다”



(사진원쪽부터)쪽방인들의 든든한 후원자인 김시승씨와 대봉교회 박희중 담임목사와 임상운 장로.

도시 빈민들을 위한 따뜻한 손길이 부족하지만 읍지에서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이들도 많다. 현재 대구쪽방상담소에는 약 100명이 넘는 이들이 개인후원 자격으로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있고, 대구경영자총협회, 삼성, 한국전력, KT&G, 대구은행, 영진전문대 사회봉사단 등이 꾸준히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우리사회는 아직 살만 합니다

김시승(42)씨는 3년 넘게 쪽방거주민들을 후원해오고 있다. (주)에이치케이씨 영남지사장으로 건설업에 종사하고 있던 그를 쪽방인과 인연을 맺게 해 준 이는 고향친구인 현승걸 대구쪽방상담소장이다. 그와 현 소장의 고향은 안동이다.

그때까지 동무인 현 소장이 소외계층을 돕는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던 그는 놀라우면서도 친구가 대견스

러웠다고 했고, 그래서 작은 보탬이 되고자 나섰다. 그는 현재 쪽방상담소 운영위원 중 한명으로 활동하고 있다.

당시에 그는 10년 가까이 경북 상주지역 독거노인들을 위한 봉사활동과 후원을 해오고 있었다. 그는 넉넉하지 않았던 어린시절과 신혼생활이 소외된 이들을 돕는 계기가 됐다고 한다.

“영세민을 위한 임대주택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했어요. 이곳에서 어렵게 생활을 영위하는 독거노인들을 접했고, 자연스레 이분들과 가까워졌어요.”

그에게 함께 일을 하는 지인과 친구들을 자선바자회에 데려가는 일은 이제 일상이 됐다.

“계기를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자신의 작은 실천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아는 순간 한결같이 도움의 손길을 주더군요. 아직 우리사회는 따뜻한 것 같아요.”

그는 “쪽방인들이 사회에 나올 수 있도록 자존감을 심어주는 게 중요하다”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이들을 배려한 일자리가 많이 생겨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들의 취업을 위해 뛰고 있지만 현실의 벽은 높다고 했다.

그에겐 초등학교에 다니는 어린 자녀 둘이 있다. 자신이 봉사하는 곳에서 소식지가 올때면 가족과 함께 꼼꼼하게 읽어본다고 한다.

“올해는 자녀들에게 봉사의 기쁨을 나눠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기회가 주어진다면 사회와 가족으로부터 소외된 노인들을 위한 시설을 운영하는 게 저의 꿈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대구 남구에 위치한 대봉교회(담임목사 박희중).

이 교회는 지난 2002년 7월부터 쪽방거주민들에게 김치 등 밑반찬을 제공해주고, 병들고 노쇠한 쪽방인들을 돌보는 일을 해오고 있다.

대봉교회는 쪽방거주민들에 대한 지원외에도 다문화가정 지원, 맞벌이부부 등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을 위한 야베스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해 오고 있으며, IMF 이후 한번도 거르지 않고 매주 무료급식소를 운영하고 있다.

사회봉사부장 임상운(60) 장로는 현재 김영숙 권사 등 23명의 신도들과 함께 소외된 이들을 찾아 노력봉사를 해오고 있다.

임 장로는 “우연한 기회에 대구역에서 쪽방인을 만나게 됐고, 이들의 어려움을 목격하면서 4명의 신도들과 함께 사비를 털어가며 봉사활동을 시작한 게 쪽방촌과의 첫 인연이었다”고 했다. 그는 “지금은 상담소와 연계돼 체계적으로 쪽방인을 지원해오고 있다”며 “종교, 시민단체가 함께 하는 사회봉사활동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가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구미교육청 평교사로 재직하고 있는 그는 좀더 체계적인 봉사를 위해 영남신학대학원에서 복지분야를 공부하고 있다.

그는 봉사활동이 선교활동으로 비춰지는 시선을 경계했다.

“쪽방인 등에게 단 한번도 ‘예수를 믿으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란 순수한 마음에서 이들이 사회에 융화될 수 있도록 용기를 주는데 교회가 보탬이 되고자 합니다.”

대봉교회는 앞으로 쪽방인과 소외된 계층에게 작은 보탬이 되고자 노인요양시설 건립을 계획하고 있고, 새롭게 들어설 별관에 따로 복지공간을 마련할 계획이다.

나눔의 종교가 돼야 한다고 강조하는 임 장로는 “보이는 모습만이 사실이 아니듯 쪽방거주민들을 바라보는 사회의 부정적인 시각이 문제”라며 “제각각 사연과 아픔을 안고 있는 이들에게 겉모습만 보고 함부로 손가락질하는 실수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고정일기자 kji@idaegu.com